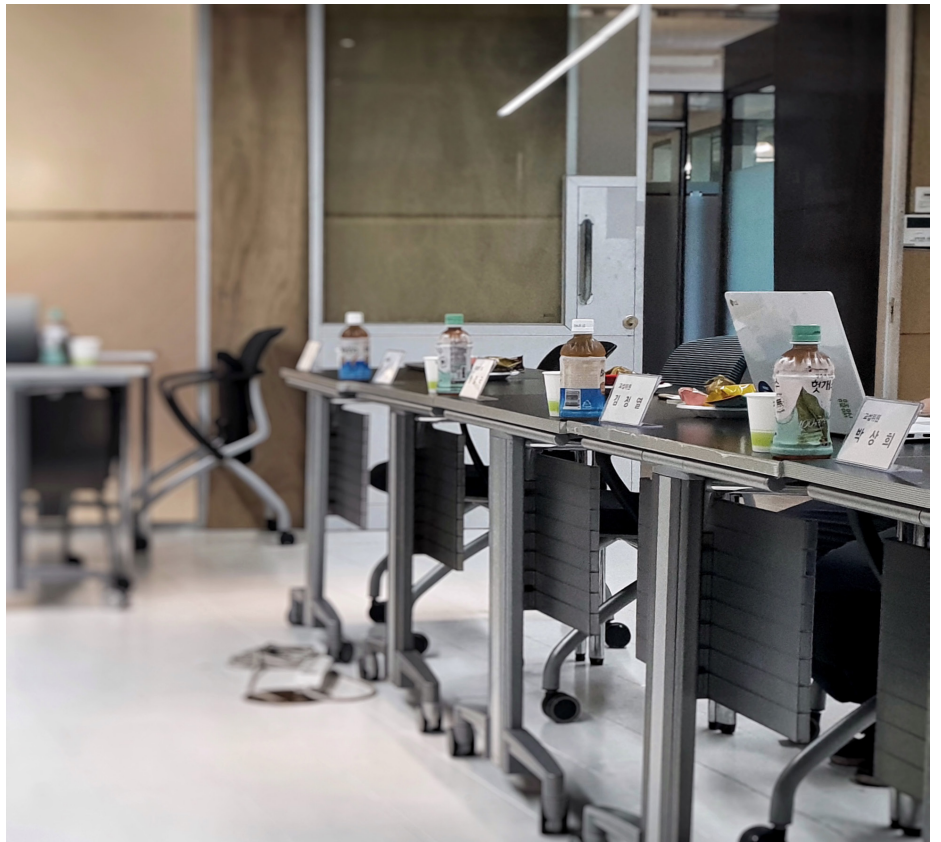


## 노사 신뢰를 약속한 NBP 첫 교섭 사측의 준비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아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은 7월 31일(화) 오후 2시 그린팩토리 27층 Cork룸에서 NBP와 교섭 상견례를 하였다. 공동성명은 지난 6월 열린 3차 교섭에서 각 법인장의 요구를 존중해 16개 교섭법인에 대해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NBP는 개별교섭을 결정한 후 처음으로 교섭에 임하는 법인이다. 조합원의 높은 관심과 지지, 네이버에서 분사된 첫 독립법인이라는 상징성, 판교로 이동하는 법인의 대표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의사를 밝혔다. 임영국 교섭대표는 인사말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회사를 사랑한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같이 깨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원기 NBP대표는 “직원들을 위해 늘 고민했고 (지금 이 노동 조합과의 교섭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답변했다. 오세운 네이버 지회장은 “근무제도 타 법인을 이끌었던 것처럼 개별 법인교섭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며 교섭에서도 NBP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오성준 NBP 부지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노사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교섭 준비와 임하는 태도에서 노사 간의 온도차는 있었다. 공동성명은 회사가 충분히 교섭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해 상견례 자리지만 이후의 교섭 방향과 일정과 판교 사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과 교섭위원에 대한 임시 타임 오프 여부를 논의하고자 했다. 사측은 근무제도 개편에 따른 계약서 수정, 판교 사옥 이전, 신규 채용 등으로 교섭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를 요청했다. 권순오 리더는 시급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즉시 충실히 교섭에 임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법인의 조직장이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각 법인에 발송한 지 1개월 반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섭장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네이버로부터 교섭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했



다”는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 네이버에서 강조한 ‘각 법인간의 독립성’이 ‘모-자회사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의미한다면 유감스럽다.

다음 교섭은 사옥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18년 8월 28일(화) 판교 알파돔시티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양보한 만큼 사측은 교섭이 조합원의 요구임을 잊지말고 준비된 자세로 본교섭에 임하길 바란다.

### ◆교섭위원 명단

노측 교섭대표 :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교섭위원 : 오세운 지회장, 박상희 수석부지회장, 오성준 NBP부지회장, 김주희 NBP스태프 사측 교섭대표 : 박원기 NBP 대표이사  
 교섭위원 : 김재동 IT Security리더, 정수환 Service Technology Platform 리더, 최용세 Cloud Development 리더, 허미양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리더, 권순오 리더 Management Support 리더, 이정훈 법무법인 에이치대표

### 교섭진행 현황표

8월 2일	
NAVER	6차교섭 진행예정
8월 6일	
컴파트너스	교섭 상견례 예정
8월 28일	
NBP	상견례 진행, 2차교섭 예정

# 노조가입원서 및 조합비 CMS동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_____	○ 여자      ○ 남자	_____	
소속회사	근무팀	전화번호	
_____	_____	_____	
조합비	출금일	은행명	계좌번호
30,000원 (월간)	일	_____	_____

※ 카카오뱅크, K뱅크 및 제 2금융권은행은 CMS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CMS 출금 이체동의  제 3자(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

본인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등에 동의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며 노조활동 및 조합비 CMS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위원장 귀하

CMS 출금 이체동의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문자(SMS)발송 동의

-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 가입서 기입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 플러스친구'네이버노조'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입은 개별적으로 본인 확인 전화 후 승인이 됩니다. 스태프의 전화를 받아주세요.

